◈며느리 권씨 열전 7-2

# 열녀烈女 공인恭人 권씨

## 검교공파 21世, 권소權紹의 딸, 이안도(李安道, 진성이씨, 통덕랑)의 처, 퇴계 이황선생의 손부

**이어지는 이억의 자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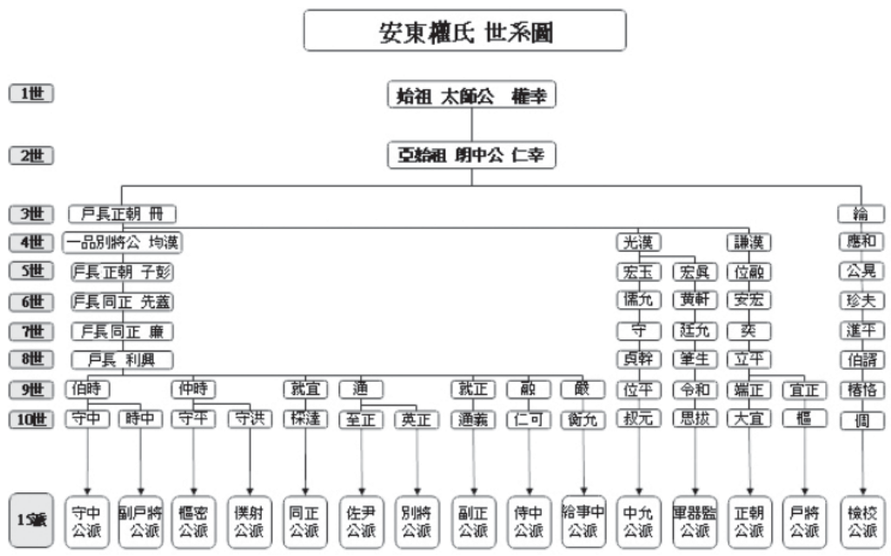
그 이억의 부부가 자손을 이어나가니 묘는 죽동에 있다. 창령성씨와의 사이에 이명철(李命哲), 이성철(李誠哲), 이신철(李信哲),이윤철(李允哲) 등을 낳았다. 명철은 자손이 없었으므로 이성철의 장자 이고(李杲)가 양자로 들어와 후사를 이었다. 이 상계 종파는 이고에서 이수겸(李守謙) – 이세덕(李世德) – 이귀응(李龜應) – 이지순(李志淳) – 이휘령(李彙寧) – 이만희(李晩憙) – 이중경(李中慶) – 이충호(李忠鎬) – 이원각(李源慤) 등으로 이어진다.

이억의 증손자 이수태(李守泰, 1681,숙종 7)-1746,영조 22)의 묘갈명에

**"건지산 남쪽 영험한 기운 모인 곳은**
**/ 搴芝南出氣積聚**
**퇴도 진성 이공(이퇴계)의 묘소이고**
**/ 退陶眞城李公墓**
**이분의 손자 직장(이안도)과 목사(이영도)는**
**/ 是孫直長及牧使**
**왼쪽 기슭 묘지동 소(昭)의 자리에 묻혔네**
**/ 左麓妙枝以昭祔**
**또 그 왼쪽 언덕 부인의 자리에**
**/ 又其左岡負寅地**
**직장의 현손(이수태)이 옷과 신을 의탁했으니**
**/ 直長玄孫衣屨寄**
**휘는 수태, 자는 대래이며 / 諱曰守泰字大來"**

라는 구절이 있다.

이황이 직접 쓴 족도(族圖)는 보물이며 여기에 이안도의 자식은 딸이 군수 홍여락의 부인, 생원 금개의 부인, 박금섭(?) 부인등이고 마지막에 계후(養子)로 '이억'이 기록 되어 있다. 이에 공인 권씨는 군수 홍여락의 부인인 맏딸로 인해 아들 이창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을 것이나 시조부 퇴계의 뜻을 따랐으니 훌륭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이는 진정한 종부로서 그 의무를 다한 것이니 이는 여느 열녀(烈女)와는 다른 소신에 찬 행동이라고 봐야한다.

그래서 퇴계 종택에 세워진 안동 권씨 열녀문은 여느 가문처럼 열녀의 허울 하에 청춘과 행복을 빼앗긴 한(恨)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기린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검교공파 21世 공인恭人 권씨의 친정**

그러면 공인 권씨의 가계를 살펴보자.

검교공파는 안동권씨 15개 파 10世에서 갈라져 나온다. 그런데 대부분은 8世, 9世에서 분파되었는데 검교공파는 3世부터 분파되었다.

공인 권씨의 부친은 권소(權紹, 검교공파 20世)인데 그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권소는 부사공(府使公)이고 자는 효중(孝仲)이다. 명종11년(1556년)안동부사로 재임시 능동 시조묘를 정비하고 위토를 확충하고 비복(婢僕)을 배치하고 태사묘에도 연간 100石을 더하여 제사를 융숭하게 지내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안동대도호부사 시절 평가는 '성품이 총명하고 일을 잘 살피는 능력이 있어 능히 간사한 아전들을 능히 제압하여 속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백성이 편안했다.'는 기사가 있다. 명종 때 '권찬과 권소는 우애와 효행이 깊음으로 정문(旌門)을 세우고 포상하는 문제를 논의하라.'라는 기사도 보인다."

공인 권씨와 동기간인 권경룡(權景龍, 퇴계문인), 권경호(權景虎, 김천현감)도 학문에 열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권경룡은 생원급제자이나 일체 관직에 나가지 않고 묘비명에도 퇴계를 따라서 관함(官啣)을 못쓰게 했다.

검교공파 파조 단소

그러면 시조 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20世 권소(權紹, 안동부사)-19世 권달수(權達手, 연산군 때 참살, 추증 도승지, 대통령비서실장), 생부 권민수(權敏手, 퇴재공, 충청관찰사, 충청도지사)-18世 권임(權琳, 군위현감, 贈이조참판, 아들 달수 덕분)-17世 권유순(權有順, 공주목사, 추증 이조참판)- 16世 권회(權恢, 서천군수, 증이조참의, 함창으로 이사)- 15世 권윤균(權允均, 공조전서, 상공장관급)-14世 권희길(權希吉. 식목도감녹사,정7품, 비상국무회의 주사급)- 13世 권육(權育,판도판서 정3품, 재무부국장)- 12世 권수견(權守堅, 전객령, 정3품,외무부 국장)- 11世 권열(權烈, 예빈동정 종6품 명예직, 외무부 주사)- 10世 권척(權倜, 검교공파파조, 검교대장군, 군수사령관)- 9世 권춘각(權椿恪,정조호장, 정초대궐문앞 인사담당, 사위가 예천권씨 시조 權暹-예빈경,외무부 의전국장급-의父 昕昇旦 벼슬은 호군 정4품 장군급)- 8世 권백서(權伯 ,권지호장, 명예면장, 예천권씨는 판서 장관급으로 기재)- 7世 권진평(權進平, 호장,郡面사무장)- 6世 권진부(權珍夫,부호장, 군면부사무장)- 5世 권공황(權公晃, 보승별장, 정7품, 지방주둔군 지휘관) – 4世 권응화(權應和, 일품별장 정7품, 지방향토군 지휘관)- 3世 권윤(權綸. 벼슬기록 없음)- 2世 권인행(權仁幸, 낭중) – 1世 권행(權幸,태사공)

이상으로 볼 때 공인 권씨네 집안은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굴곡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권세가문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조선의 대석학인 퇴계 집안의 종부로서 그 임무를 다하고 훌연히 명예를 지킨 것은 권문의 며느리로서 자랑스런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구나 봉건적 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운명을 결정 한 것이니 이는 귀감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조선 초기만 해도 주자학의 고지식한 폐해가 적고 권력의 도구화로의 진행이 덜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며느리 시리이즈가 가는 길은 인간의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타 가문에 절대적인 기여를한 권문의 여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세상의 절반(半邊天)들인 남과 여가 합하여 만든 건전한 가정이야 말로 진정한 대동세계(大同世界)라는 것이다.

그리고 맏손자 이안도와 그 부인 공인 권씨의 이야기를 마치며 퇴계가 서울의 맏손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 고위층을 안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 등 많은 서신이 있다. 이를 격대교육(隔代教育)이라 한다. 이것이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번창한 요인이다. '예기'에 따르면 포손불포자(抱孫不抱子)라 하니 손자는 안아줘도 아들은 안아주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자!

글 권오철 기자

◈ 수필

# 항아리 속에 숨은 달

권순자

친구와 의왕시 왕송호수 주변을 걸었다. 산책길 옆에는 누렇게 말라버린 연잎과 줄기가 누운 벌판이 이어졌다. 한참 걸으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작은 연꽃 몇몇이 봉오리를 펼치려고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더러는 활짝 피어 시월의 차가운 공기를 헤치고 은은하게 향기를 전하려는 듯 고운 자태로 한껏 피어나고 있었다. 아침에는 날씨가 차가웠지만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기온차가 심한 날씨였다. 꽃들도 아직은 제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얕은 연못에는 수풀을 비껴가며 청둥오리 몇 마리가 헤엄을 치며 가을햇볕을 즐기고 있었다. 청록빛 날개가 햇살에 반짝였다. 바닥이 드러난 얕은 늪지에는 백로들이 흰 날개를 저으며 날거나 종종거리며 저들끼리 거닐었다. 사진을 찍으려고 지켜보다가 한 마리가 하얗게 날아오르면 카메라로 찍었다. 솜씨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사진은 그런대로 볼만했다. 넓은 호수 주변을 걷다가 호숫가 키 큰 나무를 올려다보니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파랬다. 잔가지들 사이로 기러기 떼가 줄지어 날아가는 게 보였다. 한참을 걸으니 배추와 무가 자라는 채소밭을 만났다. 배춧잎마다 온통 벌레가 파먹은 구멍투성이였다. 아마도 약을 치지 않고 자연그대로 키우는 모양이었다. 밭 한쪽에는 무가 자라고 있었다. 시퍼런 무청이 자라다가 제 무게에 못 이겨 흙에 잎이 늘어져 있기도 했다. 무청 아래로 무가 자라느라 쑥 흙 밖으로 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를 보는 순간 무청과 무와 흙밭이 나를 어린 시절 시골집으로 데려갔다.

어릴 때 어머니는 내게 무 심부름을 자주 시켰다. 집 근처 밭에 가서 무를 한 개 뽑아오라고 시키면, 나는 겨우 잠에서 깨어나 졸린 눈을 비비고 집을 나섰다. 이슬에 젖은 키 작은 풀잎을 헤치고 무밭으로 부지런히 가다보면, 신발과 바짓가랑이는 이슬에 금방 젖어들었다. 무 밭은 여덟 살짜리 어린 나에게는 한참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작은 도랑을 건너 산기슭에 자리 잡은 밭에 도착하면 풀냄새와 찬 아침 공기로 코 안이 싸한 느낌을 받았다. 무 줄기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힘껏 뽑아 올렸다. 흙을 좀 털고 나면 하얀 무가 드러났다. 어머니는 쌀밥에 무를 썰어서 무밥을 해주시곤 했다. 무맛이 배인 밥은 달았다. 무국보다는 나는 무밥이 먹기 좋았다. 무밭에 가던 어떤 날엔 길가에 뱀이 지나갈 때도 있었다. 뱀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뱀이 나를 따라올까봐 지그재그로 신경 써서 재빨리 걸었다. 지그재그로 걸으면 일자로 생긴 뱀이 발자국을 재빨리 따라오지 못한다고 동네 같이 놀던 언니가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후로 풀이 무성한 길을 걸을 때는 뱀을 실수로 건드릴까봐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해서 걷곤 했다.

무밭 다녀오는 심부름은 힘들기보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들 때문에 망설여지곤 했지만 무 임무는 내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무를 넣은 생선조림도 가끔 만들어주셨다. 생선조림에 든 무맛은 평생 내 입맛이 되었다. 어른이 되어서 내가 생선조림을 만들면 무를 먼저 먹으며 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말이다. 무밭으로 가던 길에서 만난 뱀의 붉은 빛이 섞인 등줄기까지 기억나는 것이다. 기억 속의 광경은 무섭지 않고 아련하게 다가온다.

가을이 끝날 무렵이면, 어머니는 무를 모두 뽑아서 무 잎을 잘라냈다. 무청은 새끼줄로 엮어서 처마 밑 그늘에 걸어 말렸다. 시래기는 겨울 내내 식구들 국이나 반찬거리로 쓰였다. 아버지는 뒷마당 한쪽에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었다. 거기에 겨울 동안 먹을 무를 가득 채우고 가마니와 짚으로 잘 덮었다. 나중에 추워지면 무를 꺼낼 수 있도록 무 더미 한쪽에 작은 입구도 만들었다. 어머니는 한겨울 동안 무가 필요할 때마다 팔뚝을 걷고 깊숙이 묻힌 무를 꺼냈다. 그때마다 팔에 흙이 잔뜩 묻곤 했다. 어머니는 가끔 구덩이에 든 무를 꺼내 우리에게 깎아 주었는데 시원한 무맛이 입안을 가득 메우던 기억이 난다.

무 하면 겨울에는 동치미가 으뜸이다. 고구마를 쪄서 동치미와 먹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떡을 먹을 때도 동치미 한 사발이면 목을 축여가며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커다란 항아리에다 동치미를 담아서 뒷마당 한구석에 묻어놓았다. 동치미가 땅속에서 익어갈 동안 어머니는 시래기 된장국을 자주 끓였다.

사회 초년병 시절이었다. 평소에 운동을 즐기던 터라 막상 일하게 되니 운동할 시간이 별로 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침마다 달리기 하는 것이었다. 아침에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 부석 읍내에서 부석사까지 매일 아침마다 달렸다. 처음에는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 습관이 되어서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뛰는 일이 즐겁기까지 하였다. 몸이 단단해지고 마음까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석 달 쯤이 지났을까. 문득 종아리를 보니 종아리가 돌처럼 단단해지고 눈에 띄게 굵어졌다.

어느 날, 친구가 '뭔 아가씨 다리가 남자 다리 같아! 라고 걱정을 했다. 내가 봐도 종아리 부분이 너무 근육질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결이 햇살에 많이 그을려 보여서 더 근육이 도드라져 보였다. 계속했다가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친구가 겁을 주었다. 곰곰이 며칠 생각하다가 일단 아침 달리기는 멈추었다. 하지만 보기에는 덜 미끈해 보여도 난 무 다리가 좋았다.

둘레길을 걷다 보니 배가 고파왔다. 친구와 식당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걸은 후라서 그런지 맛깔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보니 입맛이 당겼다. 작고 둥근 오지항아리에 반달이 떴다. 달을 입 속에 넣어 깨물면 아삭한 맛이 입 속에 가득히 퍼졌다. 아주머니는 동치미를 한 번 더 내다 주었다.

**겨울 밤, 달빛이 깊다**
**항아리엔 조각난 달들이 둥둥 떠 있다**
**달처럼 환한 동치미 한 사발**
**아삭아삭 씹히는 겨울밤 이야기**
**어스름한 달도 목이 마른지**
**지상에 내려와 국물 마시고 간다**
**아삭아삭 동치미 무를 씹으며 간다**
**신산한 지난날이 개운하게 익을 때까지**
**제 풀에 지쳐 물러지지 말라고**
**소금은 짠 힘으로 혼을 불어넣었으며**
**바람은 시련의 시간을 달래어 주었다**
**항아리에 숨어든 달이 맛있게 익어가도록**
**서리는 서늘한 품에 한 계절**
**항아리를 고이 품어주었다**

-(〈동치미〉 전문, 권순자)

동치미를 먹으며 어머니와 무밭을 추억하였다. 시원하고 맛있는 무맛이 가슴을 뭉클하게 적셔주었다.

# 능동재사 디지털화 작업 추진

문화재청은 안동권씨 능동재사(陵洞齋舍,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에 대해 지난 9월 중순부터 3D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3D 디지털화 작업이란 능동재사 건물 전체에 대해 각 건물마다 전면, 후면, 옆면, 위면 등을 촬영하여 디지털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 등 만일의 사태로 건물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토대로 복구하기 위해서이다.

추진팀은 드론까지 동원하여 하늘에서 능동제사의 모습까지 촬영하고 있다. 3D 디지털화 작업은 12월 중순 경에 완료할 예정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 안동권씨 복야공파종회보 창간

복야공파종회(회장 권세목)에서는 2021년 10월 20일 복야공파종회보(僕射公派宗會報) 창간호를 발행했다. 칼러 8면이다.

파종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개최한 파종회 고문과 자문단 간담회에서 2011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파종회지는 파친들의 숭조정신을 일깨우고 파친 간 족의를 돈독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그동안 2년 주기로 발간하던 파종회지는 3년마다(회장 임기 중 1회) 발간하기로 하고 대신 제반 문사를 보다 빠르게 신선한 소식을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파종회보를 발간하기로 결의하였다.

아울러 권석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권오장. 권오익. 권갑현. 권영채. 권오추 위원으로 창간호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편집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갖고 파종회보 발간 주기와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면마다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중지를 모은 끝에 드디어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다.

발행주기는 분기와 반기로 하며, 회보 분량은 분기 4면, 반기 8면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지역별 문중행사, 선조 문집 소개, 선조 선양 사업, 기행문, 선조 유적지 소개, 선행 사례, 인물 동정 등 족친 여러분들의 주옥같은 원고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이 있기를 기원드린다.

보내실 곳 : 안동시 감나무길 11(태화동) 파종회 사무실
문의 전화 054-855-6989 E-mail : kyc42@daum.net

편집국장 권행완